틀에서 벗어나기 I.
두려움과 근심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24-27]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1 . 두려움과 걱정은 영적인 문제이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이 인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파도가 배를 덮일 정도로 크게 일어났다. '두려움'이 제자들의 생각과 감정을 덮어 버렸다.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들이 느낀 감정은 '죽을지도 모른다'이다. 왜 두려움이 영적인 영역일까? 인간의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다를 잘 알고 있었다.

[마가복음 4:37]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니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원인은 바다 자체가 아니라 '큰 바람'이었다. 그들은 바다를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바다를 통제 못하는 이유는 큰 바람이 불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 두려움의 특징**

(1) 보이지 않는다.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 한다. 사람의 모든 정보는 감각을 통해 입력된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그 중에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가장 두려워 한다. 보인다는 것은 무엇일까? 왜 우리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면 두려워할까?

'어둠속의 대화' (dialogue in the dark) -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지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깊은 바닷속에도 수많은 소리들이 존재하듯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인 관계를 단절시키는 '어둠'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시각 이외에 다양한 감각들을 활용한 익숙하지만 낯선 진정한 소통의 발견이라는 발상에서 본 전시는 시작됩니다'
_"Discover the unseen" (1988년 독일 프랑크 푸르트에서 안드레아스 하이네케 박사에 의해 시작된 어둠속의 대화)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 두려움의 근거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적원리로 말하면 '보이는 세계'에만 민감한 '육과 혼의 감각'들만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영적감각' 들이 무뎌져 있기 때문이다. 즉, 겉사람에게 치중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제자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광풍으로 시작되었다.

[고린도전서 2: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숨겨진 비밀'이라 말한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즉, 인간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이 비밀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비밀'의 특징은 대중적이지 않다. 은밀하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공유되는 것이 비밀이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의 원인은, 내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이다. 확신하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비밀의 일들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2)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 한 이유는 풍랑으로 인해 배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물이 범람해서 배로 들어왔다. 모든 것이 흔들렸다.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과 같다. 어떤 결정도, 선택도 할 수 없다. 수렁에 빠진 상황과 같다.

오늘 사람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 잠재적 두려움이다. 지금 행복해도 이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 지 알 수 없다. 이것은 내 행복을 지탱해 주는 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자들 서로가 그들이 타고 있던 배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안다. 감추고 있을 뿐이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언제라도 다가올 불안함의 파도를 알지만 나는 아니라 말한다. 그런데 정작 그 파도가 올 때 당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담의 잠재적 두려움은 결국 가인 때 나타났다.

2. 두려움의 해결

(1) 평강의 주

그들은 주님을 깨웠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바람과 바다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후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두려움의 해결은 '잔잔한 평강'으로 온다. 평강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있는 완전한 권위와 능력 앞에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완전히 다스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절대적으로 충만함'에 이른 상태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 정도로 완전하고 온전한 분이시다. 그 완전함 앞에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간 상태를 말한다. 두려움과 부족함이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는 이유는 '결핍과 부족함' 때문이다. 사람이 느끼는 결핍과 부족함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완전해야 안전한 것이다. 안전함이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사야 26:3-4]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3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him whose mind is steadfast, because he trusts in you. (NIV)
3 주님,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새번역)

누구에게 평강이 오는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평강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보이는 세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한결같다고 말한다. 영어로 보면 견고한 생각, 흔들리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평강이 임한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또는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게 한다. 평강이 필요한 시대이다. 결국 '신뢰'의 문제이다.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분은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4절). 여호와를 신뢰하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2) 안전한 장소로 가라. 머물러야 한다.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기 위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가야 한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께 가야 한다.

[시편 91:1-5]
1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2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3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 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4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 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 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5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풍랑속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과 연합해야 한다. 시편 91편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러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머물다 보면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임한다. 그 완전한 평강 안에 거할 때, 2절 이후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 마음에 그 확신이 생겨난다.

두려움과 걱정은 영적인 영역이다. 어둠을 쫓는 방법은 하나이다. 빛이 들어오면 된다. 어둠을 쫓는 수고를 하지 마라. 빛 앞에 조명하라. 시간을 두고 머물러야 한다. 머물러야, 연합해야 산다.